

■ 2022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체험 프로그램 (6)성읍초등학교

“아, 징그러워”... 얼마 후 손으로 쓰옥~

한라생태숲서 곤충 교육
구조·종류·변태과정 배워
채집할땐 비명·탄성 교차
“곤충 다칠까봐 조심조심”

게임이나 어제 먹었던 과자를 주제로 약자지킬 떠돌던 아이들이 곤충 사냥꾼으로 돌변했다. 징그럽다며 처음에는 질색팔색 비명을 질렀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곤충이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싸기도 한다. 자연이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돼준 순간이다.

28일 제주시에 위치한 한라생태숲에서 성읍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제주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 들어 벌써 여섯 번째 프로그램이다.

이날 성읍초 학생들에게는 ‘곤



한라생태숲 체험프로그램에 나선 아이들이 푹푹뚫은 눈으로 곤충을 바라보고 있다.

충’을 주제로 숲길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먼저 머리, 가슴, 배로 나뉜 곤충의 구조부터 종류, 변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아이들 스스로가 알→애벌레→번데기

→성충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몸짓으로 표현할 때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초반 게임이나 먹을 것 얘기를 하던 아이들의 입에서 온통 오늘의 주제인 곤충 관련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어 본격적인 채집에 들어갔다. 한라생태숲의 너른 들판을 무대로 아이들이 채집망과 채집통을 들고 중형무진 곤충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채집망으로 호기롭게 곤충을 잡았지만, 막상 채집통에 넣으려니 무서워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속출한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 함께 자리한 사단법인 한라산둘레길 관계자들이 도움을 주자 언제 울었냐는 듯이 푹푹뚫은 눈으로 채집통 속에 있는 곤충을 바라봤다.

시간이 지날 수록 아이들의 채집은 속달돼 갔고, 말미에는 직접 손으로 곤충을 잡고 관찰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성읍초 1학년 고예림 양은 “처음에는 징그러워서 만지지 못했는데, 예쁜 나비를 보고 만지기 시작했다”며 두 손으로 감싼 귀뚜라미를 보여줬다.

송은범기자



“모래 날림을 막아라”... 비사방지막 설치 28일 제주도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모래가 날리지 않도록 비사방지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상국기자

창고 화재 잇따라
1000만원대 재산 피해

제주시 애월읍과 노형동에서 창고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8일 제주시부소방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19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축사 폐창고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창고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가 다량의 검은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 창고 32㎡가 소실됐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41분쯤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창고 일부와 집기류 등이 소실되며 1282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35명을 투입에 진화에 나섰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도영기자

‘초등 돌봄’ 확대 시행 가능할까

교육청 “오후 8시까지”... 시범운영 계획 발표
비정규직연대 “인력 확충 대책없이 추진” 반발

김광수 교육감의 ‘안전한 돌봄 시스템 운영 내실화’ 공약으로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6일 내놓은 ‘저녁 돌봄교실’ 시범 운영, 전면 확대 계획과 관련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돌봄노동자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은 안전한 돌봄이 아닌 수중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제주지부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28일 성명에서 “정책 시행을 전제한 소통에서 당사자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우

려된다”며 인력 확충 계획, 노동시간 확대에 따른 대책, 저녁 식사 해결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데도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지어 “아이들이 불 꺼진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있다는 것은 방치”라며 “과연 그러한 돌봄교실을 정상적인 돌봄이라 말할 수 있는가. 안전한 돌봄이 아닌 수중에 가깝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제주에서는 109개 초등학교 237실에 237명의 돌봄전담사가 배치돼 오후 5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내달 말까지 돌봄전담사를 포함 학부모, 교직원 대상 설

문조사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연대회의의 성명에 대해 “교육부 자료를 보면 현재 제주를 제외한 시도교육청에서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고, 특히 8개 지역은 오후 7시 이후 ‘저녁 돌봄교실’을 시행 중”이라며 “제주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내년 시범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향후 돌봄 인력 확보 등을 통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원하지 않는 곳에는 돌봄교실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돌봄교실 확대는 이미 교육감 공약으로 여러 차례 언급됐고, 돌봄전담사 측에도 교섭 과정에 확대 필요성을 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일주도로 10개 구간 제한속도 조정

보행자 적어 위험 낮은 곳
시속 50km→60km로 상향

위험도로는 50km→40km로

안전속도5030으로 시속 50km로 하향된 제주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도로 1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사고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 상향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또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애월해안도로 등 사고 위험 및 보행자 안전

강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심의 결과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김녕리) 일부 ▷하귀 일주서로(하귀리) 일부 ▷서귀포시 안덕 일주서로(감산, 화순) 일부 ▷서귀포시 남원 일주동로(태흥)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반면 최근 렌터카 사망사고가 발생한 애월 해안도로의 경우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에서 시속 40km로 하향했다.

이 밖에도 제주경찰청은 ▷구좌읍 월정 해맞이해안로 ▷노형 수목원 서길 등 제한속도 미지정 이면도로 5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결정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사업

제주차산업 육감만족한마당

마켓플레이스

2022. 10. 01(토) ~ 02(일) 12시부터 제주시 칠성로 쇼핑거리

주최·주관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제주도의소리 제주CBS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켓플레이스

- 제주6차산업 제품 전시, 판매 (최대 30%할인)
- 놀면서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홈카페/메일 씨앗 심기/누드감귤 오메기떡 만들기/제주 스머징스틱 만들기/친환경 수경재배 반려식물 키우기/꿀림밤&밀랍방향제 만들기/스위트 골드키워칭 만들기/청귤에이드&풋귤곤약젤리 만들기)
- 다양한 게임 및 영수증 이벤트

육감만족 한마당 이벤트

- 행사기간 중 선착순 400명 체험 무료
- 영수증 이벤트 : 쇼핑거리 매장 10만원 이상 구매 시 선물 증정 (행사당일에 한하여 영수증 표기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함)